2008 제천간디학교 1학년『움직이는 학교』

학교를 나온 통닭들의
몸으로 배우는 우리네살이

언　제: 2008년 4월 1일 - 4월 20일
어디서: 전남 장흥 온숨공동체
누　가: 강태운 강한울 권　웅 김겨레 김태원 노희재 라윤희 문장훈 문의겸
박종은 백동민 신지성 오세용 은승현 이송헌 이재명 임소현 전유진
정　광 정지훈 조은솔 최햇님 한다연 한하림 홍지인 (이상 학생들)
태영철 서은혜 신은미 주　란 (이상 샘들)

제천간디학교

<편지로 먼저 만나는 무빙스쿨>

MS를 기다리며,

MS가 뭘까? 궁금하시죠. 바로 'Moving School'의 줄임말입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움직이는 학교'라 명명했지요.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학생들이나 교사들 중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움직여?"하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학교'는 "세상 어디라도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간디학교"라 여기고 기꺼이 찾아가 배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체험학습이라는 말로도 쓰지요. 하지만 '움직이는 학교'는 체험학습에 비해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이 체험자 중심의 일회성 경험에 무게를 둔다면 우리의 '움직이는 학교'는 그 중심을 '배우는 자의 자발성'과 '배움의 현장' 그 둘 모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의 자발적 참여'와 그 '배움을 일으키는 현장(사람 등도 포함)'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발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현장이라도 아무런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배우는 자발적 참여가 있더라도 그 현장이 적합하지 않다면 배움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움직이는 학교의 '배움의 현장'인 전남 장흥의 '온숨공동체'는 우리 1학년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현장으로 여겨집니다. 간디학교의 교육목표인 '자연친화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전인적인 삶' 모두를 몸과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온숨공동체'가 가진 철학과 목표, 구성원들의 실천적 삶의 모습 그리고 현장의 역동성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등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훌륭한 배움의 장소와 사람들을 청소년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운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의 자발적 참여'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이번 'MS'는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리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저는 아래의 몇 가지로 그 선물을 포장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삶의 체험'이라는 선물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농사, 야생초, 천연염색, 음식 만들기 등등의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부딪히는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가는 기억과 추억은 오감이 모두 작동할 때입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우리의 오감 모두를 자극하고 새롭게 깨어나게 하는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만남'이라는 선물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나 특강 혹은 방문을 통해 지역의 사람들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던 개성적이고 특별한 전문가(혹은 장인)들과 자주 만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특별한 분들의 합계보다 더 많은 분들을 이번 MS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하고도 특별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폭을 넓히면서 아울러 자신의 꿈과 희망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배려'라는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학년 전체가 움직이며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나 행동, 말 등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개인은 전체의 소중한 부분이며 동시에 전체는 각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그래서 전체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며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가장 아끼는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배려라는 선물은 워낙 비싸서 잘만 받아들이면 덤으로 사랑과 용서와 자유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설레고 기쁩니다, 이 모든 선물이 양념반, 후라이드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건강과 활력과 에너지가 좔좔 넘치는 우리 양념반, 후라이드반!
가장 신나고 멋진 'MS'를 만들어봅시다.

2008년 3월 어느 봄날,
MS를 기다리는 담임 치킨 드림

차 례

편지로 먼저 만나는 무빙스쿨 ---------- 3
2008년도 1학년 『움직이는 학교』 소개 ---------- 7
움직이는 책꽂이 ---------- 9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며 ---------- 11
우리가 준비하는 저녁밥상, '5,000원의 행복 ' ----- 13
『움직이는 학교』 미리 맛보기 ---------- 21
-산에 들에 야생화
-고마워요, 지렁이
-알록달록 천연염색
-얼쑤절쑤 우리 소리
-아기자기 도자기
-다시 보는 4.19혁명
우리들의 행복한 하루: 함께 쓰는 일기 ---------- 29
함께 부르는 노래 ---------- 51
풍물 악보 ---------- 57

2008년도 1학년들의 <움직이는 학교>

'앎'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치고자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삶이 가장 좋은 교과서이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올해는 봄빛 푸른 남도에서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움직이는 학교』는 식, 의, 주 체험과 풍물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고, 아직은 서먹한 1학년이라 서로 몸으로 부대끼며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1. 언제: 2008년 4월 1일(화) ~ 4월 20일(일)

2. 어디서: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381 온숨공동체

3. 누가: 중1 학생 25명, 교사 5명 (태영철, 서은혜, 신은미, 김동희, 주란)

4. 무엇을: 우리 생활문화체험 (식, 의, 주 문화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5. 준비물
-모둠준비물: 코펠 1세트(5~6인용), 버너 2개
-개인준비물: 침낭, 휴대용 베개, 세면도구(가급적 친환경 세제), 공책, 필기구, 수저, 컵, 수건 2~3개, 샌들이나 슬리퍼, 운동화, 티셔츠(2~3장), 속옷(4~5벌), 바지(2~3장), 봄가을 점퍼(1벌), 운동복 상하의(1벌), 양말(4~5켤레), 비옷, 모자 등
-그 외: 염색할 의류(손수건이나 얇은 티셔츠), 함께 읽을 책 1~2권

6. 열정적인 배움을 위한 약속
-만화책, MP3, 손전화, 디지털카메라, 판타지소설, 무협지, 카드 등 『움직이는 학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은 가지고 오지 않기로 합니다.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먹거리들을 싸들고 오지 않습니다.
-돈은 한 달치 용돈과 차비만 가져오시고 샘들께 맡기세요.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날짜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 rowspan="2">날짜/시간</td><td colspan="4">체험학습 프로그램</td></tr>
<tr><td>오전</td><td>오후</td><td>저녁</td><td>도움 주시는 분</td></tr>
<tr><td>4/1(화)</td><td></td><td>숙소 배정과 정리</td><td>오리엔테이션</td><td></td></tr>
<tr><td>4/2(수)</td><td>장흥의 역사와 문화</td><td>문화유적 탐방</td><td></td><td>김석중 선생님</td></tr>
<tr><td>4/3(목)</td><td>지렁이 사육장 만들기</td><td>야생화 묘목 만들기</td><td><지구의 파수꾼
지렁이> 강의</td><td>진병교 선생님</td></tr>
<tr><td>4/4(금)</td><td>토종 텃밭 만들기</td><td>야생화 동산 꾸미기</td><td>야생화 이야기</td><td>이영동 선생님</td></tr>
<tr><td>4/5(토)</td><td>정남진 토요풍물시장</td><td>바다이야기
(조개구이/해수탕 목욕)</td><td></td><td></td></tr>
<tr><td>4/6(일)</td><td colspan="3">개인 휴식</td><td></td></tr>
<tr><td>4/7(월)</td><td>천연염색 체험</td><td>나주 쪽물염색 체험</td><td>“물” 영상물 상영</td><td>김연대 선생님
정관채 선생님</td></tr>
<tr><td>4/8(화)</td><td>산나물 채취 및 건조</td><td>산나물 및 약선요리</td><td>전통차 만들기</td><td>김광수 선생님</td></tr>
<tr><td>4/9(수)</td><td>효소 만들기</td><td>화전 부쳐먹기</td><td>“약초” 영상물 상영</td><td>송일섭 선생님</td></tr>
<tr><td>4/10(목)</td><td>향 주머니 만들기</td><td>개인 휴식</td><td></td><td></td></tr>
<tr><td>4/11(금)</td><td colspan="2">천관산 등반</td><td>숲 기행 / 별 관측</td><td>김종섭 선생님</td></tr>
<tr><td>4/12(토)</td><td colspan="2" rowspan="5">풍물교실</td><td rowspan="7">풍물교실</td><td rowspan="8">큰들문화센터
김영란 선생님</td></tr>
<tr><td>4/13(일)</td></tr>
<tr><td>4/14(월)</td></tr>
<tr><td>4/15(화)</td></tr>
<tr><td>4/16(수)</td></tr>
<tr><td>4/17(목)</td><td>허브오일 만들기</td><td rowspan="2">풍물교실</td></tr>
<tr><td>4/18(금)</td><td>4.19 마라톤</td></tr>
<tr><td>4/19(토)</td><td>풍물발표회 준비</td><td colspan="2">대동놀이 풍물발표회</td></tr>
<tr><td>4/20(일)</td><td>집으로</td><td colspan="3"></td></tr>
</table>

움직이는 책꽂이: 책 읽으며 준비하는 무빙스쿨

움직이는 학교 기간 동안 혹은 그 전에 읽으면 배움에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아래에 안내된 책들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읽고 오면 더 좋지만 움직이는 학교의 아침독서 시간이나 개인휴식 시간에 틈틈이 읽어도 좋습니다. 읽은 만큼 배우고 느낄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가져와서 '움직이는 책꽂이'를 만들어요.

<움직이는 책꽂이>

- ☐ **『우리 그릇 이야기』, 이지현 글, 조승연 그림, 청년사**
- ☐ **『동글납작 도자기』, 오명숙 글, 고응철 그림, 강경숙 감수, 문학동네**
- ☐ **『야생초 편지』, 황대권, 도솔**
- ☐ **『식물동화』, 폴케 테게토프, 예담**
- ☐ **『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 정옥기, 들녘**
- ☐ **『쪽빛을 찾아서』, 유애로 글, 그림, 솔거나라**
- ☐ **『얼쑤절쑤 사물놀이』, 고수산나 글, 이정규 그림, 문원**
- ☐ **『사물놀이 이야기』, 김동원 글, 곽영권 그림, 사계절**
- ☐ **『역사 다시 읽기 하나: 4.19혁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쓰고 펴냄.**
- ☐ **『갯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혜영 지음, 조광현 그림, 사계절**

그리고 또 무슨 책을 읽었나요?

( )의 움직이는 책꽂이

1.
2.
3.
4.
5.

얘들아, 내가 읽은 이 책은 말이지...

『움직이는 학교』로 움직이기 전 이런저런 생각들

나는 이번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얼 느꼈나?

간디학교의 『움직이는 학교』란 대체 뭘까?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뭐야?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대답들은 『움직이는 학교』가 다 움직인 후의 마음과 비교해보면 재밌겠지?

우리가 준비하는 저녁밥상, '5,000원의 행복'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저녁은 우리들이 직접 해먹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세 끼를 식당샘들이 혹은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몸으로 식, 의, 주를 배우러 온 마당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요. 겨우 열흘 남짓이지만 다섯 명씩 모둠을 만들어 요리도 해보려고요. 요리만 잘 하나요? 얼마 전 <생활의 발견> 수업시간에 은주샘이 알려주신 원칙대로 식단도 잘 짰고요. 학교 식사 당번의 경험을 살려 설거지도 뒷정리도 잘 한답니다.

한 끼 식비가 1,900원인데, 쌀과 김치, 밑반찬을 얻을 수 있으니까 1인당 1,000원의 돈으로 한두 가지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다섯 명이니까 5,000원. '5,000원의 행복'을 기대하시라.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태샘, 은혜샘, 동희샘, 은미샘, 주란샘, 부모님들 (샘들 식단은 비밀!)

1조의 '5,000원의 행복'

날짜	주식	국	주 반찬	기타	필요한 재료 (양과 금액도 기록)	오늘 쓴 돈	남은 돈
4/1(화)	쌀밥	콩나물국	계란말이	김			
4/2(수)	김치볶음밥	미역국		사과			
4/3(목)	오므라이스		김치	귤			
4/4(금)	쌀밥	오뎅국	파절임 오징어채				
4/5(토)	쌀밥	스프	돈까스	양배추샐러드 단무지			
4/6(일)	쌀밥	무국	닭볶음	오이무침 핫케이크			
4/7(월)	쌀밥	떡만두국	김치	귤			
4/8(화)	쌀밥	우리밀 우동	김치	단무지, 딸기			
4/9(수)	쌀밥	두부전골		김			
4/10(목)	쌀밥	우리밀 라면		귤			
4/11(금)	쌀밥	된장찌개	삼겹살	각종 쌈 쌈장,소금			

2조의 '5,000원의 행복'

날짜	주식	국	주 요리	기타	필요한 재료 (양과 금액도 기록)	오늘 쓴 돈	남은 돈
4/1(화)	샌드위치			주스			
4/2(수)	치즈떡볶이			우유			
4/3(목)	밥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물			
4/4(금)	김치볶음밥	계란국	김	물			
4/5(토)	밥		고등어, 김치, 김	물			
4/6(일)	떡만두국		김치	물			
4/7(월)	스파게티		마늘빵	음료			
4/8(화)	오곡시리얼		과일	우유			
4/9(수)	닭죽		김, 김치	물			
4/10(목)	밥	된장찌개	김치	물			
4/11(금)	수육		김치, 무	물			

3조의 ‘5,000원의 행복’

날짜	주식	국	주 반찬	기타	필요한 재료 (양과 금액도 기록)	오늘 쓴 돈	남은 돈
4/1(화)		떡국	김치				
4/2(수)	밥	김치찌개	어묵볶음				
4/3(목)	주먹밥			물			
4/4(금)	떡볶이			딸기			
4/5(토)	밥	된장국	달걀찜				
4/6(일)	오므라이스	계란국	케챱				
4/7(월)	밥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4/8(화)	카레라이스	물	김치				
4/9(수)	우동		김치				
4/10(목)	유부초밥		단무지, 김치				
4/11(금)			삼겹살				

4조의 '5,000원의 행복'

날짜	주식	국	주 반찬	기타	필요한 재료 (양과 금액도 기록)	오늘 쓴 돈	남은 돈
4/1(화)	밥		계란말이	김치			
4/2(수)	밥	콩나물국	감자볶음	김치, 김			
4/3(목)	밥		어묵볶음 콩나물	김치. 김			
4/4(금)	밥	미역국	감자전	김치, 김			
4/5(토)			삼겹살	상추, 쌈장			
4/6(일)	볶음밥	계란말이		김치, 김			
4/7(월)	밥	된장찌개	햄구이	김치, 김			
4/8(화)	밥		시금치나물 감자볶음	김치, 김			
4/9(수)	국수		김치				
4/10(목)	묵밥	미역국	계란말이				
4/11(금)	떡볶이		단무지				

5조의 '5,000원의 행복'

날짜	주식	국	주된반찬	기타	필요한 재료 (양과 금액도 기록)	오늘 쓴 돈	남은 돈
4/1(화)	비빔밥			김밥			
4/2(수)	김치볶음밥	계란국	단무지				
4/3(목)	카레라이스		김치	귤			
4/4(금)	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4/5(토)	계란밥		나물,김치	사과			
4/6(일)	잔치국수		김치	떡			
4/7(월)	우동		김밥	빵			
4/8(화)	쌀밥	된장찌개	삼겹살	야채, 쌈 김치			
4/9(수)							
4/10(목)							
4/11(금)							

‘5,000원의 행복’은 정말로 행복했나?

-우리 조의 식단과 요리, 가계부 평가하기-

산에 들에 야생화

생약초

흔히 약초라고도 하나 목본식물은 물론 버섯 등의 군류나 세균류도 포함된다. 인간이 식물을 약용으로 쓴 것은 선사시대부터이며 약 4800년 전 중국의 신농이 약으로 식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약초의 뿌리별 쓰임

1.잎이나 전초를 쓰는 약초(쑥.질경이등)
2.열매를 쓰는 약초(산딸기.탱자등)
3.꽃이나 꽃가루를 쓰는 약초(매화꽃.벚꽃등)
4.뿌리를 쓰는 약초(도라지.더덕등)
5.뿌리껍질을 쓰는 약초(뽕나무.느릅나무등
6.나무껍질이나 가지를 쓰는 약초(계피등)

몇몇 야생화의 종류와 특징

-변산 바람꽃: 다년초로, 습기 있는 산기슭 풀밭 숲속에서 자란다.
-은방울꽃: 다년초로서 섬 지방을 뺀 전국의 산기슭 풀밭에서 자란다.
-너도바람꽃: 중부 북부지방의 깊은산 숲속 약간 습한곳에서 자란다.
-어류매화: 작을 때는 예쁜데 커서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꽃을 못 볼 수도 있다.

* 조사자:
* 출 처:

고마워요, 지렁이

Q: 지렁이의 방귀는 과연 해로울까?
A: 답은 X이다. 지렁이는 흙만 먹고 살기 때문에 방귀를 만들 성분이 없다고 한다. 못 믿겠으면 직접 먹어보시라.

꿈틀꿈틀 미끌미끌한 지렁이. 그 흉한 생김새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동물-벌레보단 동물에 더 가깝다고 한다-인데, 지렁이는 보기와는 달리 농작물의 성장에 대단히 크게 기여하는 우리에게 이로운 동물이다. 지렁이의 변은 질소와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으며 지렁이의 변을 물에 희석시켜 식물에게 뿌려도 해충이 쉽게 접근을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렁이가 흙을 먹으면서 만들어내는 굴도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시켜주기 때문에 식물은 더더욱 잘 자란다. 흙을 먹을 때는 '강모'라고 하는 빳빳한 털을 흙에 고정시키고 무서운 속도로 흙을 먹어치우지만 흙이 딱딱할 때엔 썩은 채소를 먹는 외에 길을 파먹어 들어간다고 한다.

지렁이의 머리 쪽을 주의 깊게 보면 희뭇한 굵은 줄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환대'라고 하며 그것의 앞부분을 자르면 보통 죽고, 뒷부분을 자르면 재생되거나 두 마리가 된다고 한다. 앞부분에서 13,14번째 마디에 생식기가 번식을 하는데 암수가 한 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렁이는 알을 밸 수 있다.

지렁이의 수명은 보통 1년 정도이나 5~10년까지 사는 지렁이도 있다. 웬만한 곤충들보다 훨씬 장수하는 셈이다.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데 슬프게도 지렁이가 물에 들어가는 이유의 95%는 낚시 미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자.

지렁이의 길이는 보통 10Cm를 웃돌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지렁이들 중 가장 큰 것은 약 3m라고 한다. 건장한 성인 평균키의 약 2배정도 되는 길이다.

지렁이는 그리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데, 압력도 압력이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워지는 온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렁이가 없다면 지구상이 시체로 뒤덮여 악취가 가득할 것이고 그로인해 생물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렁이를 천대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행동이 아닐까.

* 조사자:
* 출 처:

알록달록 천연염색

천연염료

-식물성: 초목의 잎, 가지, 꽃, 뿌리, 열매 등을 이용한 염색.
옛 염료의 대부분이 식물성 염료라고.
-광물성: 흙을 이용한 염색. 황토 염색이 대표적임.
예부터 그림이나 건축에 주로 사용했다고 함.
-동물성: 패류, 연지충, 오배자 등을 이용한 염색.
가짓수가 적고 염재가 희귀해 사용이 드묾.

직물(염색할 소재)

동물성 섬유(모, 명주)는 염색이 잘 되나 식물성 섬유(모시, 삼베, 면)에는 물이 잘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정련 (직물의 준비)

염색에 들어가기 전 직물애서 여러 불순물을 깨끗이 처리하는 과정.

-기초적인 방법! 넉넉한 그릇에 40~50℃의 물에 세제를 적당히 풀어 한두 시간 담갔다가 약 30분가량 삶아 흐르는 물이나 넉넉한 물에 여러 번 잘 헹궈 가볍게 짜고 털어 편 채 말린다.
-전통적인 방법! 잿물을 사용.
* 잿물이나 세제도 영향을 주므로 잘 헹구는 센스.

염색에 필요한 도구

-염색통: 염색 과정 전반에 두루 쓰이는 용기로 지름 50~60cm정도.
플라스틱 빨래 대야가 가장 적합.
-플라스틱 양동이: 염색을 거르거나 보관할 때 쓰이며 보통 20L 크기.
-염료 제조 용기: 염료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염재를 끓일 때 쓰는 그릇.
스테인리스나 법랑 제품. 염료보관은 플라스틱 용기가 무난.
염재를 끓인 후 즉시 잘 닦아 보관. 전의 염재가 영향.
-계량컵: 염액, 물, 매염제등의 양을 측정.
0.5~1L정도의 비커나 플라스틱 제품, 조리용 계량컵도 무방.
-계량 수저: 화학매염재의 양 측정.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가 안전하며 편리.
-저울: 염재, 매염재의 양 측정. 경우에 따라 디지털 저울이 필요할 수도.
-온도계: 염액의 온도 유지. 유리 막대로 된 수은 온도계가 적합.
-고무장갑: 각 염료 종류마다 따로 준비해 두면 편리.
-작두: 염재를 잘게 자를 때. 칼, 전정가위, 톱 등으로 대체 가능.
-염색봉: 직물을 골고루 뒤집는 데 사용. 대나무나 스테인리스 재질.
-항아리: 물발을 올리기 위해 발효시키는 용기.
-고무래: 쪽을 저을 때 사용. 손잡이 길이나 판자 크기는 체격에 맞게.

매염

염료의 착색과 발색 그리고 견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염제.

-전통 매염제:

잿물(식물의 잎가지를 태워 재를 만들고, 물을 부어 받은 물.)

철 매염제: 녹슨 철망과 못, 소금과 밀가루를 한 데 모아 열 배 정도의 물을 붓고, 10일후에 사용한다.

명반: 알루미늄성질. 독성이 적고, 순하다.

-보조매염재: 콩즙, 탄닌, 산, 키토산, 감.

염색하기

-황토염색

준비물: 대야 1개, 스테인리스 그릇(10L), 물 5L, 염료 2홉,
천일염 큰수저1개, 옥양목

만들기

1. 준비된 염료에 소금을 넣는다.
2. 천을 집어넣고, 잘 주무른다.
3. 골고루 염색이 스미도록 한다.
4. 잘 펴서 말린다.
5. 물세탁을 5회 이상 반복한다.
6. 1,2회 더 반복한다.

-간편한 쪽물들이기

준비물: 쪽 1kg, 하이드로 50g, 가성소다(양잿물) 20g, 빙초산 50cc,
플라스틱 양동이 15L, 스테인리스 그릇 4L, 염색봉, 고무장갑.

만들기

1. 쪽 덩어리를 부셔 스테인리스 그릇에 넣는다.
2. 60도 정도의 물을 붓고 풀어 쪽 죽을 만든다.
3. 60도의 따뜻한 물 10L를 쪽 죽에 넣어 젓는다.
4. 가성소다 20g, 하이드로 50g을 넣고 잘 저어준다.
5. 뚜껑이나 랩으로 덮어 2,3시간 그대로 두는데, 2번 정도 저어준다.
6. 청색 피막이 생기면 윗물을 조심스럽게 따라낸다.
7. 30도 정도의 온도를 맞추어 염색한다.
8. 천을 넣고 뒤적거리며 10여분 담갔다 말린다.
9. 2,3회 반복 후 세탁.

* 조사자:
* 출 처: 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정옥기, 들녘)

얼쑤절쑤 우리 소리

1.사물놀이란?
사물놀이란 불교의식에서 쓰이던 악기를 말하기도 하고
풍물놀이에서 쓰인 대표적인 악기인 북, 장구, 징, 꽹과리를 일컫기도 한다.
우리가 말하는 사물놀이란 이 네 가지 종류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과 놀이를 말한다.

2.사물놀이의 유래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공동체 생활을 해왔다. 풍물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일의 흥을 돋우기 위한 '두fp굿'등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며 풍물놀이는 점점 사라져가는 듯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경 남사당패의 일원으로 따라다니던 젊은이들 몇 명이 풍물놀이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만든 것이 사물놀이이다.

3.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들
쇠라고도 부르는 꽹과리는 악기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요란하고 강한 소리를 낸다. 꽹과리는 가락을 만들어내고 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장구는 꽹과리와 함께 가락을 이끌어간다. 때론 꽹과리보다 화려한 가락과 춤동작을 선보이기도 한다.
북은 소리가 무거워서 둔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하지만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구름을 생각나게 한다. 북은 사물놀이 가락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장단의 기본가락을 지킨다.
징소리는 묵직하고 깊은 소리를 낸다. 또한 소리가 은은하여 오랫동안 부드럽게 퍼져 깊은 여운을 남긴다.
징은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이 장단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어진다.

4.풍물의 간단한 용어들
-두렁소: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마을 농악을 이끄는 풍물잡이
-상쇠: 꽹과리를 치는 사람으로 풍물패를 지휘하는 우두머리
-치배: 풍물을 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화동: 모든 치배들을 부르는 소리.
-추임새: 흥을 돋우기 위해 넣는 말.
-부쇠: 상쇠를 도와 꽹과리를 치는 사람
-농구: 다음의 상쇠가 될 사람으로 따라다니면 상쇠의 역할을 익히는 사람.
-쇳가락: 꽹과리를 치는 사람
-설장구춤: 장구치는 사람이 개인기술을 뽐내며 혼자 장구를 치며 추는 춤
-웃다리: 경기·충청 지방의 풍물

* 조사자: 오세용 최햇님 조은솔 한하림
* 출　처:

아기자기 도자기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1)제토
도자기의 여러 제조공정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제토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도자기의 기본을 이루는 뼈대, 즉 점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업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라도 원료가 잘못 선택되었거나, 또는 재료의 양을 잘못 조절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마지막 소성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그전에 나타나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특히 도예를 배우는 학생들 경우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작품의 구상이 끝나면 그 작품의 성격에 맞는 가장 정확한 용도의 점토를 선정하거나 점토를 스스로 조합하여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작품을 위한 정확한 점토의 선택이 현대도예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것이다.
적절한 점토를 선택해서 제토한 후, 오랜 시간 동안 실온에서 숙성시켜 점토의 점력을 증강한 후에 성형하여야 한다. 제토 직후 바로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점토 공장으로부터 바로 구입한(즉시 만들어 옮겨온) 점토를 사용하면 기물이 갈라지거나 불 속에서 파손되기 쉽다.

2)성형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인 성형 방법으로는 코일성형(Coiling), 물레성형(Wheel Throwing), 손성형(Hand Building)등이 있다. 손성형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속파내기 성형과 판성형등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산업 도자에서는 주입성형(Casting)방법이나 압축성형(Press Forming)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건조
성형의 중요성 못지않게 건조과정이 중요한데 도자기는 건조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갈라지거나 파손된다.

4)장식
장식은 크게 나누어 1차 장식(성형직후 또는 건조과정 중에 하는 장식)과 2차 장식(초벌구이 이후에 하는 장식), 그리고 3차 장식(재벌구이 이후에 전사지 등의 부착으로 하는 장식)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장식 : 성형 직후 또는 건조과정 중에 있는 장식으로 양각, 음각, 투각, 부각, 상감 등을 할 수 있다.
-2차장식 : 초벌구이 이후에 주로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그릴 수 있다.
-3차 장식 : 재벌구이가 끝난 후 유약의 표면 위에 저온용 전사지를 부착하여 3차 소성을 할 수 있다. 이를 '상회기법'이라고도 한다.

5)초벌구이
'애벌구이'라고도 하며, 섭씨 800도를 전후하여 초벌구이를 한다. 이는 그림을 그리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유약이 잘 입혀지도록 한다. 초벌구이를 하지 않을 경우 파손율이 높고 유약의 색상도 좋지 않다.

6)시유
사람에게 옷과 같은 역할로 초벌구이가 된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유약이라도 가마의 구조와 불의 조절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 작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색깔과 시유기법이 다르다.
유약에 담그거나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약을 흘려서 입히거나 붓으로 바르는 방법 등 각 작품의 성격에 맞추어 적당한 시유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유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7)재벌구이
재벌구이는 본구이 또는 참구이라고도 하며 도자기의 제조공정 중 마지막 과정이다. 도자예술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에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한다. 즉 도예는 흙으로 만들어 불로 구워내어야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구이 과정은 도예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아무리 잘 만들어서 좋은 유약을 입혀 놓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재벌구이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와 방법이 틀어지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각기 도예가들의 의도에 따라 마지막 재벌구이 과정에서 가스, 나무, 전기, 또는 노천소성 등 어떠한 소성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역시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점토의 선정과 작품의 소성과정, 온도, 방법 등이 확실하게 결정된 이후에 작품의 제작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작품의 크기와 가마의 크기도 미리 정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며 미리 설정된 재벌구이 방법에 따라서 마무리해야 한다. 고온 번조용 점토를 사용하여 성형한 기물을 저온의 유약에 사용할 수 없고 반대로 저온용 점토에 고온용 유약을 사용할 수 없다.
소성과정을 어떠한 크기의 가마에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여 얼마나 긴 시간을 몇 도까지 소성하며 그리고 불꽃의 분위기는 산화염으로 할 것인지, 또는 환원염으로 구워낼 것인지의 결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색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 조사자:
* 출 처:

다시 보는 4.19혁명

4.19혁명은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에 의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을 찾아보면 독립혁명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혁명은 그때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 정권을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대통령 선거에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바꾸어 많은 국민의 원성을 샀다. 또한 그러한 사태로 인하여 자신이 당선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 결국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거 표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3.15부정선거란 투표통을 바꾸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표가 많아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재당선 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여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피의 화요일" 이라 불리는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학생 시위대열은 경무대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부정선거 규탄과 학원의 자유를 요구했던 시위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혁명의 대열로 바뀌고 있었다. 젊은 학생들은 전우와 애국가를 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갔다. 시민들도 학생들의 대열에 합류했고, 서울시내는 온통 민주를 외치는 시위대열로 뒤덮혔다.

* 조사자:
* 출 처:

우리들의 행복한 하루

-함께 쓰는 일기-

[움직이는 학교 첫 날]

2008년 4월 1일 불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2008년 4월 2일 물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렁이는 내 친구, 지구의 파수꾼 지렁이]

2008년 4월 3일 나무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생화 이야기]

2008년 4월 4일 쇠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풍물시장과 바다이야기]

2008년 4월 5일 흙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움직이는 학교에서의 일요일]

2008년 4월 6일 해날 날씨 _____

♡ 주말을 어떻게 보냈나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연염색/쪽물염색 체험]

2008년 4월 7일 달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산나물과 허브를 지지고 볶고]

2008년 4월 8일 불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효소는 어떻게 만들까]

2008년 4월 9일 물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향기로운 향주머니 만들기]

2008년 4월 10일 나무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디인, 천관산을 만나다]

2008년 4월 11일 쇠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소리와의 첫 만남]

2008년 4월 12일 흙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소리, 풍물]

2008년 4월 13일 해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장단도 흥겨워라]

2008년 4월 14일 달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신나게]

2008년 4월 15일 불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광의 상처, 손에 잡힌 물집]

2008년 4월 16일 물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팔다리는 아파도 이제 제법 가락이 술술]

2008년 4월 17일 나무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락 구수하다, 어깨춤이 들썩]

2008년 4월 18일 쇠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솜씨 뽐내보자, 잔치판을 벌여보자]

2008년 4월 19일 흙날 날씨 _____

♡ 오늘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 (today's new & good)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

♡ 칭찬해요, 반성해요.

♡ 내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동안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정리해보아요]

2008년 움직이는 학교 마지막 날

☺ 2008년 1학년 무빙스쿨, 나만의 하이라이트!

☺ 3주 동안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자기 평가)

☺ 내일이면 집에 가네요...! 아쉽지만 이곳 공동체 식구들과 작별인사를 해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 전해요. 친구들과도 그 동안 수고했다, 즐거웠다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세요.

함께 부르는 노래

달팽이의 노래
난 천천히 갈 테야 / 어둔 밤 반딧불 찾아 갈꺼야
살아 숨쉬는 푸르른 꿈에 / 몸을 낮추어서 입맞출꺼야
난 천천히 갈 테야 / 이마엔 빛나는 등불을 켜고
아주 낮은 곳 희망을 위해 / 가슴에 따뜻한 노래를 품고
꽃과 새와 바람과 나무 / 풀잎에 이슬까지 다 만날꺼야
은빛의 길 하나 단정히 내며 / 천천히 갈꺼야

난 천천히 갈 테야 / 두 손엔 가득 꽃씨를 들고
메마른 땅에 꽃을 심으러 / 쉬지 않고 천천히 걸을꺼야
난 천천히 갈 테야 / 풀꽃들에게 다가갈 테야
세상의 작고 여린 것들과 / 다정하게 입맞출꺼야
꽃과 새와 바람과 나무 / 풀잎에 이슬까지 다 만날꺼야
은빛의 길 하나 단정히 내며 / 천천히 갈꺼야

바로 그 한 사람
이 세상 어디에나 태양이 비추듯이 / 누구나 행복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길을 걷다 채이는 돌멩이라 하여도 / 그것 없인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 가지 마세요 / 그렇게 혼자 가면 당신도 외로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사람 / 바로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 소중한 사람들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 기쁨의 그날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 통일세상 그날까지 전진 전진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 기쁨의 그날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꿈찾기
희미하게 지워져갔지 지난 날들의 꿈 나의 어릴 적
기억 속에 묻혀 사라진 내 어린 꿈들
그 소중했던 꿈 찾아 이 길을 떠나보자
하나둘 씩 잊혀져갔지 어린 시절의 꿈 작고 키작은
기억 속에 묻혀 사라진 내 어린 꿈들
그 소중했던 꿈 찾아 이 길을 떠나보자
어쩌면 그 꿈들도 기억 저편 어디선가
날 찾아 길을 떠났겠지 그 조그맣던 나를
하지만 찾을 수 있어 그 작고 소중한 꿈
언젠가 내 기억 속에 살며시 숨쉬고 있어
꿈을 찾아떠나는 설레임 속에 휘파람을 불며 떠나가보자
그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다시 만나는 날에 굳게 손잡고 다른 꿈들 함께 찾아가야지
그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날자2
낮은 둥지 속에서 우리 꿈을 키우며 살아왔지
하늘로 날아올라 푸른 세상을 내려다보는 꿈
홀로 작은 날개 퍼덕이며 더 높이 날 수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야 하네
더 큰 몸짓으로 날아보자 더 큰 날갯짓으로 날아오르자
더 높은 곳에 올라 하나된 세상 보게 될 꺼야
우리 날자 더 높이 날자 우리 큰 꿈을 보듬어 안고
통일의 바람을 타고 가로막은 장벽을 넘어
우리 날자 더 멀리 날자 우리 큰 희망을 노래하며
너와 나의 날갯짓처럼 하나된 세상 펼쳐보자

노래만큼 좋은 세상
내 작은 목소리로 다른 이들을 노래하고
너와 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노래하면
언젠가 이룰 거야 노래만큼 좋은 세상
우리 모두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노래에 마음을 열고
나만의 좁디 좁은 껍질을 깨고 날개를 펼치면
당신을 만나고 또 사랑할 힘이 되어
내 안에 지지 않는 별 하나로 뜨지

당신을 위한 백지 –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위한 백지 –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위한 백지 –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위한 백지 –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풍　　물

기본가락 익히기

1. 난타 (일채, 내드림)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			당			당			당		
장구	∅			∅			∅			∅		
북	쿵			쿵			쿵			쿵		
모듬	/			◯			/			◯		
징	징			징			징			징		

① 일반적으로 풍물을 시작할때 굿으로 들어감을 신호하는
헛장단으로 굿내는 가락 또는 너름굿이라고도 한다.

② 느리게 시작해서 조금씩 빠르게 몰아서 맺는 4박의 장단이다.

③ 점점 조금씩 빨리 친다

2. 인사

	1	2	3	2	2	3	3	2	3	4	2	3
구음	안	녕		안	녕		안녕	하	세	요		딱
쇠	당	당		당	당		다다	당	당	당		딱
장구	∅	∅		∅	∅		∅ ∅	∅	∅	∅		/
북	쿵	쿵		쿵	쿵		쿠쿠	쿵	쿵	쿵		딱
모듬	∅	∅		∅	∅		∅ ∅	∅	∅	∅		∅
징	징			징			징			징		

① 풍물을 시작할때 치는 일반적인 인사가락이다.

② 굿거리 배의 4박의 장단이다.

3. 다드래기 (이채, 휘모리)

	1	2	2	2	3	2	4	2
시작	당	기	닥	기	당	기	닥	기
깽과리	당	기	당	기	당	기	당	기
	당		다	당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당		다	다	당		다	다
마침	다	다	당		당		닥	
	다	르	르	르	.	.	.	.
장구	∅		∅		◯	/	◯	
	∅		/	/	◯	/	◯	
	◯	/	◯		◯	/	◯	
	◯	/	◯		◯	/	◯	
북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모듬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	징							

① 덧배기, 굿거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가락이다.
② 달아서 빨리 치는 가락이며, 풍물놀이에서 다짐굿에 많이 쓰인다.

4. 덧배기 (삼채, 자진모리)

	1	2	3	2	2	3	3	2	3	4	2	3
시작	당		다	당		다	당		다	다	당	
쇠	당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다	당	
마침	당		당		당		당		다	다	당	
	다	당		다	당		당			닥		
장구	∅		/	◯	/	/	◯		/	◯	/	
북	쿵			쿵			쿵		쿠	궁		
모듬	/		/	◯		○	/		/	◯		○
징	징											

① 삼채 (전라도), 자진모리 (춤, 소리 장단에 쓰일 때)라고도 부른다.
② 민요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 행진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장단이다.
③ 굿거리와 함께 덧배기는 우리 고유의 가장 기본 장단이다.
④ 3분박의 보통 빠르기의 4박자이다.
⑤ 군밤타령과 같은 경쾌한 곡들에 사용되는 장단이다.

---

① 무형문화재 11-가호<진주.삼천포 농악>의 덧배기 기본장단이다.
② 열채를 많이 사용하는 영남가락의 대표적인 가락이다.

사물놀이

1. 도　　입

2. 길 군 악

- 길군악
- 변가락
- 반길군악

3. 덧 배 기

- 개인놀이
- 빠른덧배기

4. 다드래기

- 진주군악
- 짝두름

1 도입

모듬북은 세 조로 나뉘어 8박을 한 조씩 차례로 치고 마지막 8박을 함께 친다

	1	2	**2**	2	**3**	2	**4**	2	
모듬북	◯	//	◯	//	◯	//	◯	//	…
장구	∅		∅		∅	∅			× 4
	∅	∅							× 2
	∅	∅			∅	∅			× 2
	∅	∅	∅		∅	∅	∅		
	∅	∅	∅	∅	∅	∅	∅		
	∅		∅		∅	∅			× 4
북	쿵	쿵							× 2
	쿵	쿵			쿵	쿵			× 2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 4

	1	2	**2**	2	**3**	2	**4**	2	
									× 8
쇠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 4
	당								
장구	◯	.	◯	.	◯	.	◯	.	× 4
	◯	/	◯	/	◯	/	◯	/	× 4
	∅	∅	∅	∅	∅	∅	∅	∅	× 4
	∅								
북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 8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 4
	쿵								
모듬북	◯	//	◯	//	◯	//	◯	//	× 8
	◯	/	◯	/	◯	/	◯	/	× 4
	∅								

2 길군악

길군악은 작은 소리에서 시작해서 점점 소리가 커진다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 기	당	당	당 기	당	당	다당	당 기	당	당 기	당	당	기본가락 × 5
	당 기	당 기	당	당 기	당	당	당		당	다 다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 2
							당		당	다 다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기본가락												× 3

	1	2	3	**2**	2	3	**3**	2	3	**4**	2	3	
장구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가락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기본가락												× 3

	1	2	3	2	2	3	3	2	3	4	2	3	
북	쿵	쿠	쿠	쿵	쿠	쿠	쿵	쿵	쿠	쿠	쿠	쿠	기본 가락 × 5
	쿵	쿵	쿠	쿠	쿠	쿠	쿵		쿵	쿠 쿠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 2
	쿵		쿵		쿵		쿵		쿵	쿠 쿠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기본가락												× 3

	1	2	3	2	2	3	3	2	3	4	2	3	
모듬북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 가락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 가락 × 3
	/	◯	/	◯◯	/	◯◯	/	◯◯	/	◯◯	/◯	/◯	

〔반길군악〕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기	당	당	당기	당	당	다당	당기	당	당기	당	당	신호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당기	……
	다다	당	다다	당	다다	당	다다	당					× 4
	당	다다	당	다다	당	다다	당	다다					× 2
장구	⌀	◯/	◯	⌀	◯/	◯	⌀	⌀	◯/	◯/	◯/	◯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2
북	쿵	쿠	쿠	쿵	쿠	쿠	쿵	쿵	쿠	쿠	쿠	쿠	신호
	쿵	쿵	쿠	쿠	쿠	쿠	쿵	쿵	쿠	쿠	쿠	쿠	……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 4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 2

	1	2	3	**2**	2	3	**3**	2	3	**4**	2	3	
모듬북	/◯	/◯	/◯	/◯	/◯	/◯	/◯	/◯	/◯	/◯	/◯	/◯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2
징	징						징						……

〔마치는 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다음	으	로	넘어	가	자	당		당	다다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답
장구	◯/	◠	◯/	◠	◯/	◠	∅		∅	∅∅	∅	∅
	∅	∅	∅		∅		∅		∅		∅	∅
북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쿵	쿠쿠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모듬북	/◯	/◯	/◯	/◯	/◯	/◯	◯/		/	/◯	/	◯
	/	◯	/		◯		/		◯		/	◯
징	징				징		징					
	징						징					

3 덧배기

1) 도입	2) 기본가락	3) 개인놀이(북 / 쇠:장구)	4) 빠른덧배기

〔도입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전체	당			얼씨	구		당			절씨	구	
	당			당			당			당		

〔기본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다	당	
장구	∅		/	◯	/	/	◯		/	◯	/	
북	쿵			쿵			쿵		쿠	궁		
모듬북	/		/	◯		○	/		/	◯		○
징	징											

〔북 개인놀이〕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		다	다	당		당		다	다	당		
장구	∅		/	◯	/		∅		/	◯	/		
모듬북	/		/	◯		○	/		/	◯		○	
징	징						징						

	1	2	3	**2**	2	3	**3**	2	3	**4**	2	3	
북	**쿵**			**쿵**			**쿵**		**쿠**	**궁**			× 4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쿠	**쿵**		**쿠**	**쿵**		**쿵**		**쿵**				
	쿵			**딱**			**딱**			**딱**			
	따	**딱**		**딱**		**따**	**딱**		**따**	**딱**			
	쿵	**(허이)**					**딱**		**딱**				

〔쇠:장구 주고받기〕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다	당		당			다	당		당			①
	다	당		다	당		다	당		당			②
	당		당		당		다	당		당			③
	당		당		당		당		당		당		④
	다	당		당		다	당		다	다	당		반복
장구	∅		/	◯	/	/	◯		/	◯	/		반복
	∅	∅		∅			∅	∅		∅			①
	∅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북	쿵			쿵			쿵		쿠	쿵			
모듬북	/		/	◯		○	/		/	◯		○	
징	징						징						

〔빠른 덧배기〕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		**당**		**당**		**당**		**다**	**다**	**당**		× 4
	다	당		당		다	당		다	다	당		
	당		**당**		**당**		**당**		**다**	**다**	**당**		× 4
장구	∅		∅		∅		∅		**/**	◯	**/**		× 4
	∅		**/**	◯	**/**	**/**	◯		/	◯	/		
	∅		∅		∅		∅		**/**	◯	**/**		× 4
북	쿵			쿵			쿵		쿠	쿵			× 4
	쿵		**쿵**		**쿵**		**쿵**		**쿠**	**쿵**			
	쿵		**쿵**		**쿵**		**쿵**		**쿠**	**쿵**			× 4

	1	2	3	**2**	2	3	**3**	2	3	**4**	2	3	
모듬북													× 4
	/		◯		**/**		◯						
	/		◯		**/**		◯						× 4
징	징												…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당		다	다	당		당		다	다	당		…
	닥		다	다	닥		닥		다	다	닥		…
장구	∅		**/**	◯	**/**		∅		**/**	◯	**/**		…
북	쿵		쿠	쿵			쿵		쿠	쿵			…
모듬북	**/**		/	◯		○	**/**		/	◯		○	…
징	징						징						…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다	다	다	다	당								× 4
	다	다	다	다	당		다	다	다	다	당		× 2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당		당		당		
장구	∅		/	◯	/		∅		∅		∅		× 4
	∅		/	◯	/		∅		/	◯	/		× 3
	∅		/	◯	/		∅		∅		∅		
북							쿵		쿵		쿵	쿵	× 4
	쿵		쿠	쿵			쿵		쿠	쿵			× 3
	쿵		쿠	쿵			쿵		쿵		쿵		
모듬북							/		◯		/	◯	× 4
	/		/	◯		○	/		/	◯		○	× 3
	/		/	◯		○	/		◯		/		
징	징						징						…

〔마치는 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다	당		다	당		당		당				
	당			(허이)			닥		당				
장구	∅	∅		∅	∅		∅		∅				
	∅			(허이)			∅		∅				
북	쿠	쿵		쿠	쿵		쿵		쿵				
	쿵			(허이)			쿵		쿵				
모듬북	∅	∅		∅	∅		∅		∅				
	∅			(허이)			∅		∅				
징	징						징						

〔연결가락〕

	1	2	**2**	2	**3**	2	**4**	2	
쇠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장구	∅	∅	∅	∅	∅	∅	∅	∅	
북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모듬	∅	∅	∅	∅	∅	∅	∅	∅	
징	징								

4 다드래기

1) 진주군악 × 2	2) 도입가락	3) 짝두름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당		다	당		다 당			당		다	당		다	당		…
장구	∅		/	/	⁀	/	⁀		∅		/	/	⁀	/	⁀		…
북	쿵		쿠		쿠		쿠		쿵		쿠		쿠		쿠		…
모듬	∅		/	/	◯	𝆑	◯		∅		/	/	◯	𝆑	◯		…
징	당								징								…

〔진주군악〕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다	다	당		다	다	당		당		당		답		당		
	당				당				당		당		답		당		
	당		다	당		다	당		다	다	다	당		다	당		
	당		당		허이		허이		당		당		허이		허이		× 2
	당		다	당		다	당		다	다	다	당		다	당		× 2
	당				허이				허이				허이				
장구	∅				∅				∅		∅		×		×		× 2
	∅		/	/	⁀	/	⁀		∅		/	/	⁀	/	⁀		
	∅		∅		허이		허이		∅		∅		허이		허이		× 2
	∅		/	/	⁀	/	⁀		∅		/	/	⁀	/	⁀		× 2
	∅				허이				허이				허이				
북	쿵				쿵				쿵		쿵		딱		딱		× 2
	쿵		쿠		쿠		쿠		쿵		쿠		쿠		쿠		
	쿵		쿵		허이		허이		쿵		쿵		허이		허이		× 2
	쿵		쿠		쿠		쿠		쿵		쿠		쿠		쿠		× 2
	쿵				허이				허이				허이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모듬북	/				◯				/		◯						× 2
	∅		/	/	◯	/	◯		∅		/	/	◯	/	◯		
	∅		∅		허이		허이		∅		∅		허이		허이		× 2
	∅		/	/	◯	/	◯		∅		/	/	◯	/	◯		× 2
	∅				허이				허이				허이				
징	징								징								

〔도입가락〕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당		당		당				× 2
					당		당						당		당		
	∨		당		∨		당		∨		당		∨		당		
	∨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장구									∅		∅		∅				× 2
					∅		∅						∅		∅		
	∨		∅		∨		∅		∨		∅		∨		∅		
	∨		∅		∅		∅		∅		∅		∅		∅		
북	쿵		쿵		쿵												× 2
	쿵		쿵						쿵		쿵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모듬북	∅		∅		∅												× 2
	∅		∅						∅		∅						
	∅				∅				∅				∅				
	∅		∅		∅		∅		∅		∅		∅		∅		
징	징								징								…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장구	◯	/	◯		◯	/	◯		◯	/	◯		◯	/	◯	
북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모듬	/	◯	/	◯	/	◯	/	◯	/	◯	/	◯	/	◯	/	◯
징	징								징							

〔짝두름〕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상쇠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 2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부쇠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모듬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구	○	/	○		◠	/	◠		○	/	○		◠	/	◠		…
북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
징	징								징								…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상쇠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 2
부쇠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모듬북	/	○	/	○	/	○	/	○	/	⊙	/	⊙	/	⊙	/	⊙	
상쇠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 2
부쇠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모듬북	/	○	/	○	/	⊙	/	⊙	/	○	/	○	/	⊙	/	⊙	
장구	○	/	○		◠	/	◠		○	/	○		◠	/	◠		…
북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
징	징								징								…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상쇠	닥		다	다	닥		다	다	닥		다	다	닥		다	다	…
부쇠	다	다	닥		다	다	닥		다	다	닥		다	다	닥		
장구	◯	/	◯	/	◯	/	◯		◯	/	◯	/	◯	/	◯		…
북	딱		다		딱		다		딱		다		딱		다		…
모듬북	/	◯	/	◯	/	◯	/	◯	/	◯	/	◯	/	◯	/	◯	…
징	징								징								…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상쇠	당		당		당		답		당		당		당		답		
	당				당				당				당				
장구	◯	/	◯	/	◯	/	◯		◯	/	◯	/	◯	/	◯		
	∅				∅				∅				∅				
북	딱		다		딱		다		딱		다		딱		다		
	쿵				쿵				쿵				쿵				
모듬북	/	◯	/	◯	/	◯	/	◯	/	◯	/	◯	/	◯	/	◯	
	∅				∅				∅				∅				
징	징								징								
	징				징				징				징				
‘허이’ 추임새를 넣어 다함께 친다.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장구	∅		∅		∅		∅		∅		∅		∅		∅		
북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 2
모듬북	∅		∅		∅		∅		∅		∅		∅		∅		
징	징								징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점점 커진다.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당		다	다	…
장구	◯	/	◯		◯	/	◯		◯	/	◯		◯	/	◯		…
북	쿵		쿠		쿵		쿠		쿵		쿠		쿵		쿠		…
모듬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	징				징				징				징				…

〔마치는가락〕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쇠	당		당		다	다	당		당				다	다	당	
	당															
장구	◯	/	◯		◯	/	◯		∅				◯	/	◯	
	∅															
북	쿵		쿠		쿵		쿠		쿵				쿵			
	쿵															
모듬북	/	◯	/	◯	/	◯	/	◯	∅				/	◯	/	◯
	∅															
징	징				징				징				징			
	징															

5 인사굿

풍 물 놀 이

■ **모듬굿** : 난타를 1~2회 치면 상쇠 중심으로 치배들이 추임새를 외치며 모인다.

■ **다짐굿** : 2분박의 다드래기를 빠르고 짧게 친다.

■ **입장굿** : 3분박의 덧배기를 치면서 을자진을 그리며 무대 가운데로 입장, 원진을 만든다.

■ **인사굿** : 인사굿을 한다.

■ **열림판굿**

1) 1차 삼방진풀이

덧배기를 빠르게 치면서 동, 서, 중앙 세 방향에서 달팽이 진을 뛰어서 감았다가 푼다.

마지막 달팽이 진에서는 다드래기로 맺는다.

2) 길군악

길군악 가락을 치면서 악기별로 다양한 진을 만든다.

3) 덧배기 놀이

- 나눔진
- 쌍문진
- 교차진
- 모둠진
- 달팽이진

4) 진주군악

달팽이 진을 감고 진오방진 가락으로 넘언간다.

상쇠가 신호를 주면 진주군악가락을 치면서 신명나게 추임새를 넣는다.

다드래기 가락으로 연결하여 맺는다.

■ **퇴장굿** : 덧배기를 치면서 무대 밖으로 나간다.

■ **마침굿** : 인사굿으로 대신한다.

민요 한 자락 배워봅시다.

통일을 생각하며 부르는 우리 민요...

통일의 나라로 가자 (창작민요/굿거리, 자진모리)

(굿거리)

후렴) 어기야 어러 어러어야 얼라리 난다 디여라차
칠천만 가슴에 염원통일 통일의 나라로 가자

1. 남과 북은 한 몸이요 우리소원 이뤄보세
험준한 산 넘고 넘어 어서 오소 우리 님아

2. 두리둥둥둥 삼천리에 통일 북을 울려보세
사슬 끊고 어깨 걸고 만나보세 우리 님아

3. 우리 님 만나 좋을 씨고 해방 춤을 추어보세
백두한라 떨쳐 일어나 나아가세 우리 님아

(자진모리)

어기야디야 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야디야
통일의 나라 언제오나
외세문화 몰아내고 민족문화 지켜내면 통일의 새 세상 밝아 온다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통일아 어서 오소

(굿거리)

어기야 어러 어러어야 얼라리 난다 디여라차
칠천만 가슴에 염원통일 통일의 나라로 가자

■ 굿거리

	1	2	3	2	2	3	3	2	3	4	2	3
장구	∅		/	○	..	.	∅		/	○	/	

민요 한 자락 배워봅시다.

통일을 생각하며 부르는 우리 민요...

그날이 오면 (창작민요/ 굿거리/ 심 훈 시)

1. 그날이 오면 하늘이 열리고
   그날이 오면 꽃잎도 열리고
   뜨거운 내 가슴도 활짝 열리고
   새악시 붉은 볼이 되어 내 팔에 그대 안겨오는

2. 그날이 오면 강물이 넘실대고
   그날이 오면 새들도 춤을 추고
   뜨거운 내 가슴도 둥둥 울려대는
   고운 꿈의 봄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여

3. 그날이 오면 한사람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한두사람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의 만인의 눈으로 들이치는
   인간의 고운 봄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여

후렴) 그날이 오면 나 그대 번쩍 들어올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리라
   (3절 : 만인의 머리 위에서)

풍물 악기의 종류와 그 명칭

풍물의 악기는 금속성악기 (꽹과리, 징)와 고악기(가죽-북, 장구, 소고)로 구성되어 있다.

(1) 꽹과리

① 쇠, 매구, 깽매기, 깽쇠, 광쇠, 꽝쇠, 소금, 동고, 쟁 따위로 불리며 흔히 꽹과리 치는 사람을 쇠치는 사람(쇠치배)이라고 부른다.

② 앞치배들 가운데 맨 앞에서 쇠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 하는데 풍물굿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③ 쇠는 놋쇠를 원료로 만드는데, 요즈음에는 금이나 은을 섞어쓰기도 한다.

④ 꽹과리의 크기는 지름이 대략 21cm(7치), 둘레 부분은 높이가 3.6cm(1치2푼) 정도이다. 쇠채로 쇠의 가운데와 전두리(쇠의 테두리) 사이를 친다.

⑤ 쇠를 칠때는 한손에 쇠채를 잡고 쇠를 쳐서 소리를 내고, 한손은 쇠를 잡고 중지, 약지, 무명지를 쇠에 대었다 떼면서 쇠소리의 깊고 얕음과 음색조절을 한다.

⑥ 음색에 따라 수, 암꽹과리로 나뉘는데 수꽹과리는 소리가 야물고 높으며 암꽹과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얕다. 수쇠와 암쇠가 서로 받아 치며 하는 놀이는 마치 암새와 수새가 서로 이야기하듯 소리가 잘 어울린다.

⑦ 꽹과리는 장구와 아울러 율동악기로서 으뜸인데 옛날에는 군악이나 정악, 무악, 풍물굿 등 두루 쓰였으나 풍물굿에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가락으로 사람의 느낌을 고조시키고 흥을 돋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징

① 놋쇠로 만드는 타악기의 하나로 본래의 소리는 '정'이나 징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고취징이나 나, 금라, 금, 대금, 금정 등의 이름이 있다.

② 징의 크기는대략 지름이 약 36cm, 둘레의 높이는 10cm이며, 징의 쇠 두께는 3mm 정도이다. 징은 장단을 바르게 쳐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물의 가락(쇠, 장구, 북, 소고)을 모두 감싸서 멀리 울려퍼지게 한다. 풍물굿 악기 가운데 가장 은은한 소리를 내며 포용력이 가장 큰 악기라 할수 있다.

③ 징을 칠때는 채를 짧게 잡고 징의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밀듯이 쳐야 소리가 되바라지지 않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 징은 연주가 다양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바로 그런 이유로 발림이 다양하고 여유가 있어 춤으로 신명을 표출하기가 좋다

④ 징을 치는 횟수에 비해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징이 정확한 박으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다른 치배의 장단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하며, 장구나 쇠, 북, 모두가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⑤ 풍물에서 징은 보통 매 장단 첫 박에 친다.

(3) 장구

① 가죽 타악기의 하나로 양편 머리가 크고 그 허리가 가늘다 하여 세요고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어른들께서 장구의 가죽을 노루가죽과 개가죽으로 썼다 하여 장구가 맞다고 한다.
② 왼쪽(북편, 궁편)은 말가죽이나 소가죽, 노루가죽을 대 가죽이 좀 두껍고 소리가 낮으며, 오른쪽(채편)은 보통 말가죽이나 개가죽을 대 가죽이 얇고 높은 소리를 낸다. 가죽으로는 개가죽이 소리도 크고 제일 좋다.
③ 장구의 통은 사기, 기와, 쇠, 나무, 바가지, 양철 따위를 쓰는데, 보통 미류나무와 오동나무를 많이 쓰고, 오동나무가 가벼우며 소리도 좋다.
④ 철테(원철) 둘레에 8개의 쇠고리(쇠갈고리,구철)을 걸어 무명을 꼬아 만든 줄(숫바, 홍진사, 축승)로 얽어 매고, 죔줄(축수, 부전)을 좌우로 움직여 소리를 조절한다.
⑤ 축수를 오른쪽으로 당겨 줄을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높아지고, 왼쪽으로 밀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낮아진다.
⑥ 장구의 채로는 궁채(궁글채)와 열채(가락채)가 있는데, 궁채는 대나무 뿌리를 잘 삶아서 똑바로 편 다음, 끝부분에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 또는 뿔을 끼워서 만들고, 열채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⑦ 두 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내 어깨춤이 절로 나게 만든다. 분위기를 흐드러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될 악기이며, 민요나 춤 장단을 칠때는 궁편을 손으로 치기도 한다.

(4) 북

① 북은 꾸밈새가 간단한 까닭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 발생을 볼 수 있으며 각 민족의 특징을 지니며 발달했다. 곳과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풍물굿의 악기 가운데에서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다. 그 까닭은 청동기시대 이전의 목축시대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악기기 때문이다.
② 풍물굿에 쓰이는 북은 어깨에 메기가 간편하고 소리가 옹골찬 것을 주로 쓴다. 오동나무나 미루나무의 가운데를 파내고 양편에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대고 양쪽 가죽을 줄로 엮고 조여서 만든다. 요즘은 나무판을 엮어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③ 북은 잔가락을 운영하는 것이 주가 아니므로 다양한 가락의 연주보다는 박을 힘있게 짚어 가면서 그 기상을 힘찬 춤으로 펼쳐 나간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장구가 발달하여 북소리를 장구의 궁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상도에서는 북이 발달하여 장구의 역할이 감소한다. 따라서 북놀음이나 북가락은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발달되었으며, 전남 진도의 북춤에서는 두 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춤사위(양북춤)가 뛰어나다. 대체로 경상도 북은 크고 넓으며 전라도 북은 작은 편이다.

(5) 소고 (법고, 버꾸, 매구북)

① 풍물굿에 쓰이는 작은 북을 소고라 한다.
② 소고잡이들은 상모나 고깔을 쓰는데 전라우도와 강원도에서는 고깔을 쓰고 전라좌도와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상모를 쓴다.
③ 고깔을 쓸 때에는 종이꽃을 쓴 화려한 소고잡이가 멋드러진 춤솜씨를 보이고, 채상모 달린 벙거지를 쓸 때에는 힘찬 춤가락과 하늘을 가르는 듯한 채상의 멋과 화려함이 있는 상모놀음이 뛰어나다.

(6) 나발

① 나발의 길이는 3척 8촌(약 115cm)이고, 2토막 또는 3토막으로 구분된 놋쇠로 만든 관을 아래로 밀어 넣어 짧게 꽂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나발은 고려 공민왕때 명나라에서 군악기로 들어왔다.
② 풍물패가 어떤 마을을 들어갈때 또는 풍물패를 모아 출발할 때, 기타 신호용으로 많이 쓰인다. 마을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나발을 3번 분다음에 당산굿을 치고 들어간다.

(7) 태평소 (날라리, 새납, 호적)

① 태평소는 쇄납, 호적, 또는 날나리라고도 하며, 피리보다 서가 작고 관은 원추형이다.
② 관은 피리와는 달리 원기둥이 아니고 원뿔꼴이고 유자, 대추, 화양같이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③ 날라리는 본래 대취타(군악의 행진곡)에 사용되었고 종묘제례악에도 쓰였는데 걸립형태 때 들어와 비로소 풍물굿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었다.
④ 크고 시원한 음색을 가진고 있어 군사용이나 개선행진 등 주로 실외에서 사용되던 악기이다. 연주법은 피리와 거의 같으나 피리보다 서가 작아 입속에 깊이 물려지며, 피리처럼 배음연주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⑤ 대취타, 종묘 제례악 중 정대업, 시나위에 사용되고, 풍물에서 가락을 담당한다.

사 물 놀 이

풍물에 있어서 사물이란 쇠, 징, 장구, 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사물(범종, 운판, 법고, 목어)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남사당패의 연희중에서 풍물이 가장 간단한 짜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1970년대 말에 '사물놀이패'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쓰이게 된 용어이며 풍물이 갖고 있는 마을굿이나 대동굿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고도로 무대화 된 네가지 타악기의 연주라고 말할 수 있다.

풍물과 사물놀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주장소 : 풍물은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서 하는데 비해 사물놀이는 좁은 공간이나 무대에서도 가능하다.
② 연주형태 : 풍물은 일어서서 선반으로 하고 사물놀이는 앉아서 앉은반으로 한다.
③ 연주시간 : 풍물은 한정없이 긴데 사물놀이는 대략 한 곡당 10-15분 정도로 짜여진다.
④ 가락의 짜임새 : 맺는 가락과 푸는 가락이 반복 교체가 되는 풍물에 비해 사물놀이는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이행되는 점층적 가속의 틀을 갖고 있다.
⑤ 진풀이 : 풍물은 즉흥성을 살릴 수 있는데 반해 사물놀이는 작품의 틀이 정해져 있다.
⑥ 잡색역할 : 풍물에서는 치배와 관객의 다리 역할을 하나 사물놀이에서는 잡색이 아예 없다.
⑦ 연주인원 : 인원이 많을수록 한껏 흥겨운 풍물에 비해 사물놀이는 보통 4-6명 정도로 소규모에서 가능하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사물놀이는 풍물굿을 실내 연주용으로 변화시켜 전통을 긍정적으로 계승한 갈래임을 알 수 있다. 풍물을 창조적으로 이어받은 사물놀이는 일반 사람들에게 풍물의 장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뛰어난 기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좋은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옛날 마을굿이 지니고 있던 대동놀이적인 면을 살리고 관객과 연희자의 거리를 좁혀 가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풍물의 올바른 명칭

풍물굿은 다섯 악기(쇠, 징, 장구, 북, 소고)를 주로 치며, 소고를 들고 다양한 춤을 추는 기능과 극적 짜임을 맡는 잡색놀이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적인 놀이 형태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말이 '농악'이며 최근에는 사물놀이패가 생기면서 '사물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옛날 마을에서는 지역과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굿, 매구, 매구굿, 풍물, 풍장, 두레, 걸궁, 걸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다.

1) 농악

1870년대까지 판소리 춘향가에서는 '두레굿'이라 쓰였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농업 수탈정책의 하나인 농업 장려운동으로 원각사의 협률사라는 단체에서 농악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농악이 글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36년 총독부에서 펴낸 '부락제'라는 책에서였으며, 이로 미루어볼 때 농악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쓰인 것으로 보인다. 농악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농민의 음악'이라 하여 농사꾼이 하는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원래 풍물굿이 농경사회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 스스로 농악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었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써 일본의 탈놀이 능악의 발음인 '노가꾸'를 본떠서 농악이라는 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주의는 '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해야만 굿판을 열수 있게 했다. 8.15해방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국악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농악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사물놀이

풍물에 있어서 사물이란 쇠, 징, 장구, 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사물(범종, 운판, 법고, 목어)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남사당패의 연희중에서 풍물이 가장 간단한 짜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1970년대 말 '사물놀이패'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쓰이게 된 용어이며 풍물이 갖고 있는 마을굿이나 대동굿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고도의 무대화된 네가지 타악기의 연주라고 말할수 있다.

3) 풍장

농사일에 많이 쓰이는 말로 김매기할 때 이루어지는 풍물놀이를 가리킨다. 특히 만두레(벼농사는 김매기를 보통 3번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것을 말함)가 끝나는 날 농사가 제일 잘 된집 머슴을 소등에 태워 위로하며 노는 것을 농장원, 질꼬냉이라고 한다.

4) 두레

원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마을단위 일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특히 김매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풍물이 공동체적 놀이로써 일두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물을 두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5) 굿

모든 지방에 걸쳐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 '굿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굿의 의미는 원래 '모인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모여서 공동체 안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풀어가며, 공동체적 바람을 집단적으로 빌며 집단적 신명으로 끌어 올려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무속에서의 신앙적 뜻만을 가리키는 흐름이 있다.

6) 매구, 매굿, 매귀

땅 밑에 있는 나쁜 귀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묻고 밟는다는 뜻으로 보통 석달 그믐날 밤에 하는 풍물놀이를 매굿이라 한다.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풍물을 일컫거나 꽹과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7) 풍물, 풍물굿

주로 경기, 충청도 지방에서 쓰이는 말로 모내기할 때 간단한 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신에게 소원을 푼다는 뜻이나, 농사의 풍년을 바란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가와 문화모임들이 농악이란 말 대신에 풍물 또는 풍물굿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

풍물이라는 말은 요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따릉따릉 연락처

태영철 선생님 017-559-7137
서은혜 선생님 017-858-7566
신은미 선생님 017-209-4121

장흥 온숨공동체 061-862-7563

제천간디학교 043-653-5791~3

이 자료집은 2008년 3월에 제천간디학교 학생들과 샘들이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며 만들었습니다.